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9. 23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농업기술원		농업디지털센터장	김태우	☎ 760-7250
		농업관측팀장	김동현	☎ 760-7271
		홍보담당자	양지순	☎ 760-7514

마늘 재배의향 6% 감소…파종 마무리 시기 늦어질 전망

- 농촌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, 생산비 증가 등으로 재배의향 감소 -
- 고온·가뭄 영향으로 파종 마무리 시기 평년보다 다소 늦어져 -

- 올해 제주 마늘 재배의향 면적이 지난해보다 6%가량 줄고, 파종 마무리는 고온과 가뭄 탓에 평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됐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2026~2027년산 마늘 작황 모니터 조사 결과, 올해 재배의향 면적이 지난해 841ha보다 6%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.
 -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생산비 증가, 수작업에 기대는 재배 여건 때문이다. 남도종 수요가 줄고 수매가격이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.
 - 상품 기준 마늘 수매단가는 지난해 1kg당 4,300원에서 올해 3,800원으로 500원(11.6%) 내렸다.
- 파종은 대정읍 권역이 8월 24일쯤, 구좌읍 김녕지역이 9월 14일쯤 시작돼 평년과 비슷했으며 9월 상순과 중순에 몰렸다.
 - 다만 고온과 가뭄으로 마무리는 대정지역이 9월 23일 전후, 김녕지역이 10월 5일쯤으로 평년보다 늦어질 전망이다.
- 농업기술원은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생육단계별 상황과 기상 영향, 병해충 발생, 생산량을 조사해 월별 농업관측 정보를 제공한다.

- 김태균 농업기술원장은 “올해 마늘은 재배의향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가운데 파종 이후 가뭄이 이어져 발아와 초기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” 며 “파종 이후부터 수확기까지 작황을 살펴 생산 동향과 수급 상황을 파악해 나가겠다” 고 말했다.